

해명자료

배포일시	2019. 1. 23.(수) 20:20 (총 2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변인	담당자	과장 김현경 사무관 임병철
		전화번호	02-2181-0352 02-2181-0356

「혈세만 먹은 160억 미세먼지 기상항공기」

<헤럴드경제>, 2019.1.23.

기상항공기, 2018년 서해 대기질 실측만 8번!

“작년 4월 이후 대기질 관측 전무” 하다는 보도에 대하여
해명하고자 합니다.

【 해명 내용 / 보도내용 일부발췌 】

△ ...지난해 4월 서해상 첫 대기질 관측 이후 지금까지 기상항공기는 단 한 번도 서해상 대기질을 실측한 적이 없다.

- 기상항공기는 위험기상 선행관측, 환경기상 감시 등 기상연구·기술 발전을 위해 201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.
- 국립기상과학원의 2018년 기상항공기 운영 계획 중 대기질 관측(황사 미세먼지) 운항 계획은 총 12회였으며, 실제 총 8회 실측한 바 있음. 따라서, 기상항공기가 지난해 4월 이후 서해상 대기질 실측 한 적이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.

관측일	관측운항시간	관측지역
2018.4.18.	3:52	서해상
2018.4.20.	4:00	서해상
2018.9.5.	4:05	서해상
2018.9.18.	4:22	서해상
2018.10.2	4:00	서해상
2018.11.6.	3:27	서해상
2018.11.26.	3:25	서해상
2018.11.27.	3:40	서해상

※ 계획 대비 관측 일정이 변경된 사유는 4월 22일 ~ 6월 26일에 기상항공기 정비로 인하여 관측일정이 하반기로 연기되었으며, 하반기에 날씨상황의 사유로 서해상 대기질 관측 임무를 6회 수행함.

- 기상항공기는 서해상 대기질 관측 외 구름물리 관측과 인공증우 실험, 위험기상 선행관측 연구 등 총 106회(352시간)의 기상관측 및 연구의 주요임무를 수행함.